**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하나님의 시간과 섭리를 묵상하는 4월을 보내고, 이곳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1달간의 금식기도 기간인 라마단이 시작되어 문안과 함께 기도부탁을 드리며 짧은 소식을 보냅니다.

3월 초에 와서 한식 수업이 시작되었고 I시에서 2일 동안 특강을 마쳤고 지방 도시의 세미나를 준비했다가 무산되는 등의 일정을 보냈습니다.

4월 10일에 형부가(63세) 해외해상에서 선장으로 근무 중에 심장마비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언니가 충격으로 쓰러지고 입원하는 등 가족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도움이 되지 못하여, 저는 멀리서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항해하던 선박의 목적지가 호주 ‘뉴캐슬’이어서 그곳에서 경찰과 의료의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데 부활절과 공휴일 등으로 느리게 진행되어 5월이 되었습니다. 언제 한국까지 이송될지 미정인지라…… 장례식을 부산에서 치러야 하는데 모든 과정이 순적하고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유가족의 강건하고 평강 하도록, 넷째와 막내 여동생 등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을 깊이 생각하며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세계의 질서가 주께 순복하기를, 어둠과 악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인간을 물질로 조종하는 사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주시고 교회가 성령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의 태신자들이 질병으로 인해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 본인과 가족들이 행16:31 말씀처럼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은 환율의 인상이 그대로 물가 인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집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데, 매년 10%씩 월세를 인상했는데, 주인이 올해는 얼마를 인상할지 5월에 방문하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으면 이사를 고려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집은 깨끗하고 좋은데, 부엌 구조상 냉장고 자리가 좁아서 방에 냉장고를 두고 있고,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의 4층이라 무거운 것을 나를 때는 힘들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면 주차 문제가 있는데, 주인과 얘기를 잘 해서 지금의 여력으로는 올해 이사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예배가 주께서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동역자님들이 5월에 계속 기도해 주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1. 라마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행위로 구원 얻지 못하는 이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눈을 떠서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성령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2. 교제하는 영혼들이 구원에 관한 이유를 묻고 성령께서 마음 밭을 기경해 주시기를
3. 주께서 허락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 의탁하며 지혜를 구합니다.

(수업, 집 재계약, 현지 자동차 면허증 교부 받기, 자동차 구입에 관련 차종결정……)

1. 현지 문화를 고려하여 해마다 라마단 기간에는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여러 사정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 안전하게 수업을 마치도록
2.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영육이 강건하기를